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이국화: 일본어 소설 『고도』(古都)의 영역 및 한역 비교분석

김 한 성
(서울대)

1. 들어가며

번역은 자국어 문학과 외국어 문학의 대립과 갈등 속에 나타나는 헤게모니 투쟁을 반영한다.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번역자의 사라짐』(*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 최근의 번역 상황은 영어를 중심에 둔 영·미 문학의 팽창과 관계맺고 있다고 본다. 그가 제시한 “세계 번역 출판: 번역된 언어로부터 1982-1984”¹⁾라는 자료를 보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1982년 번역에 의해 출판된 52,198권의 책 중에 영어로부터 번역된 책은 22,208권으로 불어를 포함한 기타 언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1983,84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로부터의 번역이 전체 외국어 번역 중 40%이상을 차지하고

1)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14.

있는 기현상을 드러낸다. 베누티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이 ‘중심’인 영어권 시장에서 외국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번역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점차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영어와 다른 언어의 불균형은 “영어로 번역되는 외국텍스트의 수를 제한하고 그 내용 역시 [영어권 독자들에게 맞게] 자국화시킴으로써 외국 텍스트가 지닌 문화적 수도로서의 지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17). 세계의 번역 시장에서 영어권 문학의 팽창과 그에 따른 타 언어권 문학의 상대적 위축은 베누티를 비롯하여 여러 논자들에 의해 거론된다. 그 중, 세계 2차대전 이후의 미·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의 체계모니를 논한 마사오 미요시(Masao Miyoshi)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사오 미요시는 『중심으로부터의 분리』(*Off Center*)에서 미국 출판 시장에 있어 일본 문학 수용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정치적이고 또한 문화적인 체계모니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문학을 일본 문학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기보다 미국인 및 미국 시장의 기호와 흥미를 토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미요시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여, 일본의 문학 작품이 미국에 번역되는 경우는 미국의 문학 작품이 일본에 번역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번역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 문학과 문화에 대하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관심사에 잘 들어맞는 작품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문학 번역자였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작품이 일본 시장을 넘어 영어권에서 활발히 번역되고 유통되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²⁾

영어권 독자에게 동아시아에 관한 오리엔탈리즘을 충분히 자극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보편성을 주제화한 작품 중의 하나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고도』(古都)를 들 수 있다. 『고도』는 1963년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작품으로 교토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주제가 교토에 대한 여행기인지

2) 마사오 미요시는 『중심으로부터의 분리』(*Off Center*)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저급한’ 수준의 소설이 미국 시장에서 오에 겐자부로, 후루이 유키치, 이노우에 히사시, 나카가미 겐지 등의 ‘고급’ 수준의 소설에 비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Miyoshi, Masao (1991) *Off Center: Power and Cultur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P, 234-37 참조.

아니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인지 논란이 되어 왔다. 『고도』는 1968년 가와바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유명해졌는데 노벨 위원회에서 수상의 이유가 되는 작품으로 『설국』(雪國), 『천우학』(千羽鶴)과 함께 이 작품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비평가들의 찬사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그의 대표작 『설국』에 비해 『고도』는 실패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고도』에 대한 일본 내의 미지근한 반응은 한국어로의 번역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설국』은 1960년 김용제의 번역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고계숙 역에 이르기까지 38명의 번역자에 의해 73회나 번역되어 한국 시장에서 최고로 많이 번역된 일본의 소설작품 중 하나가 된다.³⁾ 이에 반해 『고도』는 단지 그 번역본이 이원섭 역(1969), 서계인 역(1991), 정난진 역(2006) 등 모두 3회에 지나지 않는다. 『고도』에 대해 활발한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일본의 문학계와 그에 따르는 한국의 번역시장에 비해 기이하게도 서구에서 『고도』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와바타 가오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의 논문 「세계 속의 가와바타 문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991: 31).

이 소설의 주인공은 교토라고 하는 도시로 안드레이 벨리의 『삐삐르부르그』와 같은 도시 소설에 친숙해있던 서구인들에게 이 작품이 극히 현대적인 주제를 가진 소설로서 받아들여져 널리 읽혀졌다. 또한 노벨상 수상 후보에 오르면서 해외에 널리 알려졌고 높은 평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 국내에는 작품 속에 그려넣고 있는 자연과 고미술이 일본적인 정서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등장인물들과 밀착하지 못한 채, 미의식에 매몰되어 결국은 쇠약해져버린 붓장난 정도로 그쳐 버리고 말았다.

가와바타 가오리는 『고도』가 유독 서구인들에게 흥미를 끈 이유로 안드레이 벨리의 도시 소설 『삐삐르부르그』(1913)⁴⁾와의 유사성을 든다. 교토라는 도시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그의 지적과 같이, 『고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에 따르는 교토의 풍물과 정경을 주인공 치에코의 발걸음에 따라 세심

3) 윤상인 외 (2008)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 소명출판, 118.

4) Bely, Andrey (1978) *Petersburg*, trans. Maguire, Robert A. and Malmstad, John E., Bloomington: Indiana UP.

히 묘사하고 있다. 관광안내서같은 이러한 소설의 구도는 교토라고 하는 동양의 고도를 여행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무척 유용하기 때문에 영어로 출판되는 여행잡지 론리 플래닛의 『교토』 편에서도 교토 여행을 위해 읽어야 할 소설로 『겐지이야기』, 『금각사』 등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⁵⁾

가와바타는 『고도』에서 미지의 ‘동양’을 동경하고 옛 도시의 풍취를 맛보려는 서구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구인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교토의 고도 이미지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비판되었다.⁶⁾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의 경우 각각 자국의 고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만큼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에서 고도의 이미지는 경주나 부여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라는 작품은 서구와 동아시아 간의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그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다. 또한 『고도』는 텍스트 자체가 제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작품 속에서 직접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보는 관점과 일본이 미국을 보는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예로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는 『고도』의 일본어 텍스트가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떠한 번역태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 미국의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번역 시장의 상황이 작품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중심과 주변의 개념에 입각하여 중심인 영어권의 문학과 그 주변이 되는 영어권의 문학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 작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카이 나오키(Sakai Naoki)가 『문화 연구와 일본』(*Cultural Studies and Japan*)에서 언급했듯이 중심과 주변,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관계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상대적이다(62). 단지, 일어 원문과

5) Rowthorn, Chris (2005) *Lonely Planet Kyoto*, Melbourne, Oakland, London: Lonely Planet Publications, 22.

6) 대만의 소설가 주천심(朱天心)은 가와바타의 『고도』를 패러디한 동명의 중편소설 『고도』에서, 가와바타가 일본의 교토를 스스로 오리엔탈화시키는 의도에 대해 비판하며 동아시아의 진정한 고도는 교토의 도시 계획의 기초가 된 중국 당의 수도 『서안』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전통을 둘러싼 헤게모니의 문제로 연결된다.

영어 번역만을 비교한다면 중심과 주변을 고착해버린 상태에서 번역의 태도를 비교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 번역본 역시 번역의 태도를 비교하는 관계 속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영어·일어·한국어 이상의 삼각관계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 어떠한 헤게모니의 길항작용이 있는지 한층 다각적인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문화의 지배 구도가 과거 제국과 식민지 관계였던 일본과 한국의 구도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지, 혹은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저항이 일어나는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미국·일본·한국의 삼자가 번역을 통해 어떻게 투쟁하고, 저항하며, 상호 교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문과 번역된 텍스트 간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려면 번역이 원문을 어떻게 자국화 및 이국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번역자들은 원전을 다소 훼손시키더라도 수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인지(자국화) 아니면 외국의 원전을 보전하는데 주력할 것인지(이국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베누티는 원전을 훼손시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외국 텍스트에 대한 자국어·자민족 중심적인 발상이라며 이를 비난한다. 그렇지만 이국적인 텍스트를 충실히 번역하는 이국화는 비록 외국 문화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겠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여 번역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번역 문학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는 상호대립적으로 보이는 자국화와 이국화는 실제 번역 과정에 있어 공존할 수 없을까? 필자는 영어 번역자와 한국어 번역자가 때로는 자국화, 때로는 이국화를 시도하여 이 두 대조적인 전략에 타협하고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자국화가, 어떤 부분에서 이국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뒤, 타협된 번역 텍스트가 원문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2. 텍스트 소개 및 번역 저본의 확정

『고도』는 1960년대 전후에 교토가 지닌 전통과 서구화의 갈등 양상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결혼적령기에 이른 주인공 치에코의 발걸음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순으로 교토의 정경 묘사 및 풍물 묘사에 주력한다.

치에코의 집안은 교토의 니시진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는 전통 가문으로 포목을 짜고 염색하여 의복을 만드는 일을 한다. 치에코의 아버지 다키치로는 수작업에 의한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서구화된 공장 시스템을 따를 것이냐를 두고 갈등한다. 치에코는 사실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자식이 없던 다키치로 부부가 거둔 양딸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신이치, 그리고 신이치의 형 류스케, 아버지의 직공이었던 소스케의 장남 히데오를 둘러싸고 우정과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있다. 그러던 와중 기온마쓰리에서 자신의 쌍둥이 자매 나오코를 우연히 만나면서 번민에 휩싸이게 된다. 치에코는 도매상의 상속녀로 사업을 계승하는 문제와 우연히 만난 나오코에 대한 생각으로 번민에 잠기지만, 곧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간다. 굳세게 외풍을 견디며 살아가는 치에코의 모습은 서구화의 압박 속에서 전통을 지키며 생명력을 유지해나가는 교토라는 도시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저자는 교토의 풍물과 정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표준어가 아닌 교토 방언을 사용한다. 일본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이 사투리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영어 번역자인 미주리대학교 일본어 프로그램의 제이 마틴 홀맨(J. Martin Holman)은 1987년 번역판의 서문에서 교토 방언의 난해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히로키 스기우라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구문들, 특히 교토 방언을 해독하는 것을 도와주었다.⁷⁾

홀맨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번역자들 역시 교토 방언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991년 백양출판사판을 번역한 서계인 역시 ‘후기’에서 그 번역의 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1991: 253)

엄살을 하자면 나는 이 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산고의 고통을 맛보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치밀하고 섬세한 교토 방언의 구사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d to Hiroko Sugiura and many others who assisted me in deciphering difficult phrases, particularly those in the Kyoto dialect.)

때문이었다.

사실, 가와바타 본인 자신도 『고도』의 후기에서 “이 책의 면목을 일신하고 있는 것은 교토 방언이다. 교토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쳤다(244)”라며 의도적으로 교토 사투리로 작품을 묘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교토 방언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당시의 가나표기법을 들 수 있다. 원래 『고도』는 1963년 10월 8일부터 1964년 1월 27일까지 107회에 걸쳐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것으로 당시의 가나표기법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할 일본어 원문은 연재 당시의 표기법을 현대어로 고친 1968년 신조문고 본이다. 이원섭, 서계인, 정난진의 한국어 번역본 중에 서계인 본은 원문을 누락시킨 부분이 많아 그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이원섭의 번역은 번역자 스스로의 해설은 비록 첨부되어 있지만, 번역어로 60년대의 다소 오래된 어투를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정난진 번역은 번역 후기를 남기고 있지 않으나, 신조문고판이 수록한 작가해설과 비평가 아마모토 겐키치의 작품해설을 순서대로 수록한 것을 보아 신조문고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일한 영문 번역인 홀맨의 번역이 2006년에 재개정되어 출판되었기 때문에 같은 년도에 출판된 정난진 역이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968년 신조문고 본을 저본(1)으로 확정하여 1987년도 번역 후 2006년도에 수정하여 재출간한 홀맨의 영어 번역(2)과 2006년도에 번역한 정난진본의 한국어 번역(3)을 토대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3. 『고도』의 텍스트를 둘러싸고:

일어 원문과 외국어 번역본 간의 갈등과 영합

3.1. 자국화된 국가 표상

『고도』의 영문 및 국문번역자들은 번역 태도에 있어 상당히 애국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비판적인 어조의 원문에 대해 나름의 자국화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교토의 전통과 서구화의 물결을

대립시키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향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화를 표상하는 미국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영어 번역은 저자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있다. 치에코의 아버지 다키치로는 전통 지향적인 인물로 갈수록 서구화되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는 과거 부하직공이었던 소스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옷을 물들이는 작업이 갈수록 서구의 스타일로 변해가는 것을 슬퍼하고 외래어가 범람하는 것에 대해 무척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1.J) 일본어 원문

「おおきに。。。。。。このごろは、すぐにアイデアとかセンスとか言われますな。それから、色まで西洋の流行を考えやばってな。

そんなん、高級やおへんやろ。」

「わたしはな、西洋の言葉についたのは、大きらいどす。日本には、王朝のむかしから、なんとも言えん優雅な色がおすやないか。」

(1.E) 영어 번역

“Thank you. Nowadays people would be quick to use an English word like ‘idea’ or ‘sense’ to describe it. Even colors are now referred to in faddish Western terms.”

“Those aren’t high-quality goods.”

“I hate it that Western words have come into such use. Haven’t there been splendid elegant colors in Japan since ancient times?”

(1.K) 한국어 번역

“고맙네. 요즘은 아이디어니 센스라는 말이 흔한데다 색상까지 서양의 유행을 따라가니...”

“그런 건 고급이라고 할 수 없죠.”

“난 서양이라는 말이 붙은 건 정말 싫더군. 일본엔 옛날부터 왕조의 우아한 색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는가?”

교토의 면화 산업과 의류를 염색하는 예술은 일본이 자랑하는 대표산업으로, 메이지 시대에도 일본은 스스로가 이 부분에 있어 서양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하였다.⁸⁾ 제국주의가 팽창한 시절, 일본의 면화 산업은 미국과 경쟁이 붙어

세계 2차 세계 대전을 발발시킨 한 원인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데, 교토의 니시진은 면화 산업이 집중된 곳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가계 대대로 면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키치로가 지닌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서양에 대한 증오심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양의 어휘에 붙은 일본어 어휘는 정말 싫더군(西洋の言葉についたのは、大きらいどす)”이라고 심사를 토로하는 장면에서 보여지듯이 다키치로는 서양의 수입된 면화가 자신의 사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어 번역은 표현을 다소 완화하여 애매모호하게 서술하는 태도를 보인다. 영어 번역본은 “I hate it that Western words have come into such use.”로 되어 있는데 hate는 정말 싫다라는 “大きらい”의 의미와 어조를 정확히 반영하지만, “그와 같은 식으로 사용된다(come into such use)”는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처리되어 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서양의 말에 붙은 일본어 어휘”(西洋の言葉についたの)로 번역가능한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색상에 있어 고유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를 사용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such)”의 사용은 구체적 비판을 피해 다소 해석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키치로가 지닌 신경질적인 반응을 충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일본 용어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어가 사용되는 것이 정말 싫더군(I hate it that Western words have come into use, [although indigenous Japanese words are])”으로 such를 제거한 채 부연설명하는 편이 한층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보인다. 실제 1987년 초판에서 홀맨은 such 없이 번역하고 있는데 2006년 개정판에서는 “such”가 부가되었다. 이는 다키치로가 지닌 서양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는 표현으로 영어권, 특히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독자들에게 끼쳤던 불편함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을 통해 자국화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으로 홀맨은 미국에 대한 일어 원문의 비판을 완화하고 있다.

(2.J) 일본어 원문

植物園はアメリカの軍隊が、すまいを建てて、もちろん、日本人の入場は禁じられていたが、軍隊は立ちのいて、もとにかえることになっ

8) 함동주 (2002) “근대일본의 서양담론과 정교사,” 『일본역사연구』 제 15집, 82 참조.

た。

西陣の大友宗助は、植物園のなかに、好きな並木道があった。楠の並木道である。楠は大木ではないし、道も長くはないのだが、よく歩きに行ったものだ。楠の芽ぶきのころも。。。。。。

「あの楠は、どないなってるやろ。」と、機の音のなかで思うことがあった。まさか占領軍に切り倒されてはいまい。

(2.E) 영어 번역

The American military had built houses in the Botanical Garden, prohibiting of course any Japanese from entering, but now, with the occupation army gone, the gardens had been returned to their original state.

Otomo Sosuke, who lived in Nishijin, enjoyed a certain avenue in the Botanical Garden, one lined with camphor trees. The trees were not very tall, and the street was not long, but before the occupation he had often gone for a walk there when the leaves were unfolding. Sosuke sometimes wondered, as he sat amid the clattering sound of the weaving looms, what had become of the trees. Surely the occupation army had not cut them down.

(2.K) 한국어 번역

식물원은 미군이 주둔하던 곳으로, 군대가 철수하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니시진의 오토모 소스케는 식물원 안에 있는 녹나무 가로수 길을 좋아했다. 녹나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길도 짧았지만, 그는 자주 산책을 나가곤 했다. 녹나무에 새순이 돋을 때도 물론이었다.

‘그 녹나무는 어찌되었을까’ 그는 베틀에 앉아서 녹나무에 대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설마 미군들이 베어버리지는 않았겠지.....’

이 장면은 교토의 명물 중 하나인 식물원을 묘사한 부분인데, 과거 다키치로의 부하직원이었던 오토모 소스케는 식물원에 자주 산책을 가곤 하였다. 식물원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한 뒤 새롭게 개장되는 식물원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을지 소스케는 궁금해한다. 특히 자신이 즐겨 거닐던 녹나무의 가로수길이 어떻게 변모하였을지 걱정한다.

한국어 번역본은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고 있다. “まさか占領軍に切り倒されてはいまい”에서 뒤의 “いまい”는 “いないだろう”의 동의어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ないだろう)”라는 부정구문은 부사 “まさか”와 결합하여 예기치 않은 가정을 나타내 “설마 무엇 무엇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다. 고로, 정난진의 번역은 일본어 원문에 무척 충실한 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문 번역은 원문에 위배된다. “확실히 점령군은 나무들을 베어버리지 않았다(Surely the occupation army had not cut them down)”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령군인 미군이 그와 같이 무책임한 행위를 할리 없다는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자국화가 명백히 발동된 것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일이 원문에 대하여 번역이 ‘반역’하는 모습이다.

한국어 번역본 역시 자국화에 동참하고 있는 면모를 보인다. 앞선 두 예에서 미국을 비판하는데 있어 원문을 철저히 번역했던 한국어 본은 한국을 주변화시키는 일이 원문의 의도에 거역한다. 가와바타는 『고도』에서 한국을 한 장면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을 일본과 동등한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연상시키도록 서술하였다.

(3.J) 일본어 원문

帰ろうとすると、桜の林の反対の、高い松の木の下の床机で、朝鮮の六七人の女たちが、朝鮮の服で、朝鮮の太鼓をたたいて、朝鮮の踊りを踊っていた。よほど、この方にみやびた風情があった。

(3.E) 영어 번역

As they turned to go they saw near some benches six or seven Korean girls in Korean dress beating Korean drums and dancing a Korean dance under the tall pines across from the cherry grove. This would certainly be a far more elegant sight.

(3.K) 한국어 번역

발길을 돌려 나오려는데 반대편 숲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7, 8명의 여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장구를 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대로 장소에 어울리는 풍치였다.

치에코를 비롯한 다키치로 가족은 교토의 옛 절 난나지에서 꽃구경을 하러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 여인들의 춤을 감상한다. 원문에서는 “조선(朝鮮)”이라는 용어를 연거푸 네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고도』의 텍스트가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한 묘사를 위주로 하면서도 특히 일본의 옛 절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조선” 여인들에 대한 정경 묘사를 삽입하고 있는 점은 “조선” 문화가 일본의 전통 문화의 하나의 지류로 인식되도록 한다. 그 결과 “한국”이 “조선”으로 주변화되며 여인의 춤을 통해 여성화된다. 물론 이때의 여성은 가부장제 지배권력에 순종하는 여성상을 의미한다.

“조선”에 함축된 의미는 다소 의미심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은 36년간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고,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자 북조선(北朝鮮)과 한국(韓國)으로 분단된다. 가와바타가 북조선 혹은 한국이란 국호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 둘을 모두 포괄할 수 있고 또한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조선”이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은 관습적인 사용으로 보인다. 그가 “조선”을 거듭하여 사용한 것이 과거 제국과 식민지에 대한 항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어 번역은 이를 모두 한국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한국어 번역은 조선의 의복, 조선의 북 그리고 조선의 춤과 같이 과거의 제국주의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원문에 대해 “조선”을 모두 “한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나아가 조선의 의복 및 조선의 악기 대신 한복 및 장구 등의 고유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이라는 옛 국호가 지닌 식민지로서의 주변성을 배제시켰다. 한국과 일본을 제 3자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영어 번역은 “조선”(Chosŏn Korea) 대신 “한국”(Korea)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에 생소한 대부분의 영어권 독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현대어로 고쳐 번역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이 “조선”대신 “한국”을 선택하여 번역한 사실은 한국 민속이 일본 민속의 하나의 지류로 여겨지게끔 볼 수 있는 일어 원문의 의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이는 윤상인이 지적한 대로 “번역이 단순히 정보의 일방적 전달장치가 아니라,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자각을 수반하면서 압도적인 선진문명으로부터 자국어와 자국 문화를 지켜내는 방어벽의 역할”⁹⁾을 하는 것임을 입

9) 윤상인 (2009) “번역과 국가,” 『문학과 근대와 일본』, 문학과 지성사, 193.

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본을 선진문명으로 한국을 후진문명으로 각각 간주한다면,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들의 문명 그 자체가 우수하다고 보는 우생학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사카이 나오키가 언급한 것처럼 제 1세계와 3세계의 헤게모니 변동은 상대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이고, 헤게모니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문명”과 “후진문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국과 식민지” 혹은 “제국과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로 그 용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희석시켜 미국인 독자들의 불쾌감을 감소시키려는 영어 번역의 자국화는 미국이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 원문에 대해 자국어와 자국 문화를 지켜내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헤게모니 관계와 무관하게 외국 문화에 대해 자국어와 자국문화를 지켜내며 자국의 독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이 번역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왜 독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미국과 일본, 한국은 서로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들이다. 소설이 창작된 60년대의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여파로 갈등이 남아있었고, 한국은 과거 식민지를 무단 통치했던 일제에 악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번역자들은 이같은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듯싶다. 자국의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만한 구절은 완화하여 번역한 것이다. 또한 출판 시장 역시 번역의 고려 대상이 된다. 한·일간의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판매가 중지된 『요코야마』의 경우, 번역자와 출판사는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¹⁰⁾ 이같은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려면 문제가 될 만한 구절을 삭제하거나 어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상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그대로 번역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한 ‘번역’을 향한 꿈은 경제 논리에 의해 침해받는다.

『고도』의 영어 및 한국어 번역은 국가를 표상하는 데 있어, 자국화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원문 전체를 자국화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 문화의 고유한 전통이 원문에 따라 비교적 충실히 번역되

10) 『요코야마』에 대해서는 윤상인 (2009) “수난담의 유혹—『요코야마』와 민족주의,” 『문학과 근대와 일본』, 문학과 지성사, 286-314.

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 문화를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 어떤 번역 태도가 발견되는지 서술할 것이다.

3. 2. 이국화된 일본 전통 문화: 분재, 게이샤, 사무라이

번역 방법에 있어 이국화는 원문을 오로지 문학 작품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국화를 주장하는 번역자들은 원문을 끝이곧대로 직역하려 노력한다. 그들은 원문이 지닌 이국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독자는 이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의 범람은 원만한 글 읽기를 어렵게 한다.

이 장면은 치에코와 그녀의 아버지 다키치로가 교토에 서식하는 녹나무를 통해 야마토 정신을 기리는 부분이다. 교토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지니지만, 또한 녹나무의 즐기처럼 강한 생명력도 갖고 있는 곳으로 미화된다. 여기서 치에코의 아름다운 외모와 강인한 정신은 곧 교토를 표상하고 있다.

(4.J) 일본어 원문

「なあ、千重子、楠て、お父さんも、よう知らんけど、暖かい土地、南国の木たないのやろか。熱海とか、九州とかでは、そら、さかんなもんや。ここは老木やけど、大きい盆栽みたいな感じせえへんか。
「それが、京都やおへんの？山でも、川でも、人でも。。。。。」と、千重子は言った。

(4.E) 영어 번역

“Chieko, I don’t know much about them, but don’t camphor trees grow in warm climates? Aren’t they southern trees? They flourish in places like Atami or Kyushu. There are surely ancient trees, but they look like oversized bonsai, don’t you think?
“Isn’t that the way it is with Kyoto? It’s the same with the mountains and rivers...and the people too?” Chieko said.

(4.K) 한국어 번역

“치에코, 잘은 모르지만 녹나무는 따뜻한 남국에서 온 나무라지? 그래서

아타미나 규슈같은 데서 아주 잘 자라는 모양이야. 여기 있는 것은 노목인 데도 큰 분재같이 느껴지지 않니?”
 “그러니까 교토겠쬬. 산이나 강, 사람까지도 말이예요.”
 치에코가 말했다.

원문에서 치에코와 다키치로는 생명력을 사랑하는 녹나무를 보며 “커다란 분재(大きい盆栽)”같다고 이야기한다. 분재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화분에 심어 줄기나 가지들 보기 좋게 가꾼 인공적인 나무”를 말한다. 이 커다란 분재가 바로 교토라는 치에코의 발언은 교토의 자연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짜여진 아름다움을 보인다는 의미다. 여기서 분재는 영어나 한글로 정확히 직역되고 있다. 영어는 “bonsai”, 한글판은 “분재”로 직역되고 있는 사실은 일본 문화를 그대로 옮기려는 번역자들의 이국화하기가 발동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통 문화인 게이샤와 사무라이에 대한 묘사도 원문을 충실히 따라 번역되고 있다. 게이샤와 사무라이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로 외부에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있지 않다. 다음의 장면은 다키치로가 기온의 게이샤 거리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5.J) 일본어 원문

芸者は客の気を引き立たせるためにか、出てから二年のあいだに、好きな人が四十七人会ったと言った。
 “ちょうど、赤穂義士どっしゃる。四十、五十の人もおした。今考えると、おかしいて。。。"

(5.E) 영어 번역

The geisha spoke, trying to cheer him. She said that since she made her debut she had met some forty-seven men who struck her fancy. “Just like in the famous old play about the forty-seven loyal retainers. It’s funny to think about it now… Some were in their forties or fifties.

게이샤는 다소 시무룩해 있는 다키치로의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 과거 자신의 경험담을 우스갯소리로 늘어놓는다. 그녀를 쫓아다녔던 남자의 수가 주신구라 이야기(11)에 등장하는 사무라이의 수와 같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가와바

타가 사무라이의 충성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주신구라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삽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이샤가 과거 자신을 사모했던 손님들의 열정과 정절을, 주군의 원수를 갚은 뒤 주군의 무덤 앞에서 동시에 할복자살한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들의 충성심으로 은유한 사실은 일본의 무사도를 전통적인 가치로 고양하고자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나아가 이는 일본 전통 문화를 스스로 오리엔탈화하여 서양의 독자들에게 이목을 끌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때 영어 번역은 “赤穂義士”에 대하여 “47명의 충신에 대한 유명한 옛 희곡, famous old play about the forty-seven loyal retainers” 정도로 비교적 가볍게 설명한 뒤 넘어가고 있다. 홀맨은 이 대목에서 굳이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삽입된 이야기를 세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인용된 위 장면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난진의 한국어 역은 290페이지에서 303페이지에 걸쳐 “후주”를 첨부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 역사 및 전통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원섭의 번역 역시 군데군데 “역주”를 첨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용어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 이에 반해 홀맨은 각주나 미주 없이 일본 전통을 지시하는 고유명사들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치고 있다. 온갖 전통적인 소재들로 가득 찬 텍스트를 용어 설명 없이 제대로 전달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종전 이후 미국의 주도권 속에 놓임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인 소련과 중국에 맞서는 병참기지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독자들은 일본의 문화를 소위 “서구화,” 특히 5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깊게 받은 나라로 생각하여 일본 문학을 하나의 로컬 문학으로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소라는 외세의 힘으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일본 문학을 바라보는데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벨문학상에 대한 집착과 무라카미 하루키같이 세계적으로 구매력을 보유한 작가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태도는 한국 문학이 위치한 주변성을 드러낸다. 미·일·한을 둘러싼 헤게모니의 층위가 『고도』 번역에 있어 태도 차이를 만

11) 주신구라 이야기는 1822년 아이작 틱싱(Isaac Titsingh)에 의해 서구에 처음 소개되었다.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모인 47명 무사들의 충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일본, 한국의 헤게모니 투쟁은 번역의 자국화뿐만 아니라 원문에 충실한 이국화의 정도의 차이 역시 초래하고 있다.

『고도』 번역에 나타난 자국화와 이국화 양상을 부연하자면, 영어 번역자는 미국을 비판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키치로의 언어를 다소 순화시킨다. 반면, 일본과 같은 입장에 선 한국의 번역자들은 원문의 어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비하하는 원문에 대해 영어 번역은 무심한 반면 한국어 번역은 이를 자의적으로 수정한다. 하지만, 대체로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은 일본 문화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해 원문이 지닌 문화적 특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국화 과정에서 한국어 번역이 각주를 사용하여 일본문화의 특수성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하는 반면, 영어 번역은 간단한 설명으로 이를 처리한다. 노벨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면밀히 번역·검토하여 그 수준에 이르는 한국 작가의 성장을 고대하는 한국 문학계¹²⁾와 일본 문학을 한 지역문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는 미국 문학계의 온도 차이가 번역자들의 태도를 결정하였다.

4. 나가며: 태평양과 현해탄을 넘어

이 글에서는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이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일본 전통 문화의 상징물들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번역자들은 서구화(미국화)와 동양 문화 사이의 갈등을 묘사한 이 텍스트가 지닌 풍취에 대해 자국화와 이국화를 교차해가며 번역하였다. 이들 번역자들이 자국화하고 이국화한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수용되어 읽히는 것이 번역 문학이 지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고는 원문과 번역 텍스트의 실상을 되짚어 보았다.

12) 이원섭이 『고도』 번역자로 참여한 『川端康成全集』(1969)은 가와바타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1968)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이 전집을 읽는 분에게’라는 글에서 번역자들은 가와바타 문학을 반추하여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한층 가까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의 영어 문학, 일본어 문학, 한국어 문학에서 번역 문학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영어, 일본어 문학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성을 띠는 한국어 문학은 번역 문학을 제외한 채 논의할 수 없다. 한 해에 출판되는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과 한국어로 번역되는 소설 작품의 수와 양을 따져볼 때 어느 쪽이 한국어 문학에 더 큰 가치가 있을까? 과연 창작과 번역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 창작과 번역의 대화를 통해 문학 전반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번역 문학은 단지 외국어에서 자국어로 교환된 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자국어 문학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 번역자 역시 문화의 중개자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 독자는 번역자를 통해 읽을 작품을 선정하기도 하며, 작품 속에 묘사되는 시대의 정황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고로, 번역자는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 가치중립적인 매개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와바타의 『고도』를 둘러싼 한국어 번역자와 영어 번역자는 외국의 문화를 정확히 전달하는 이국화뿐만 아니라 자국화 역시 시도하였다. 자국화는 작품을 변형시켰고 이는 원문이 번역을 통해 굴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문과 번역문의 비동등성과 불균형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 균열을 들여다볼 때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가와바타 야스나리 (1969) 『川端康成全集』, 이원섭 · 김운섭 옮김, 서울: 新丘文化社.
- _____ (1991) 『고도』, 서계인 옮김, 서울: 백양출판사.
- _____ (2006) 『고도』, 정순진 옮김, 서울: 눈과 마음.
- 윤상인 (2009) 『문학과 근대와 일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외 (2008)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 서울: 소명출판.
- Kawabata, Yasunari (2006) *The Old Capital*, trans. Holman, J. Martin, San Francisco: Shoemaker & Hoard.
- Masao, Miyoshi (1991) *Off Center: Power and Cultur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P.

Owen, Stephen (1990) 'What Is World Poetry?' *The New Republic*, 28-32.

Rowthorn, Chris (2005) *Lonely Planet Kyoto*, Melbourne, Oakland, London: Lonely Planet Publications.

Sakai, Naoki (2001) 'The West and the Problem of Co-figuration,' *Cultural Studies and Japan*, ed Steffi Richter and Annette Schad-Seifert,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Leipzig, 59-68.

Titsingh, Isaac (1822) *Illustrations of Japan*, London: Printed for R. Ackermann.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川端康成 (1968) 『古都』, 東京: 新潮文庫.

川端文学研究会編 (1999) 『世界の中の川端文学』, おうふう: 川端康成生誕百年記念.

[Abstract]

Between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A Study of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of the Japanese Novel

The Old Capital

Kim, Han Sung
(Seoul National Univ.)

A translator negotiates two strategies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Domesticated translation and foreignized translation seem mutually hostile; however, they can coexist in the practice of translation such as Kawabata Yasunari's novel *The Old Capital*, cited and lauded by the Nobel Literature Committee in 1968. Kawabata self-orientalizes Kyoto throughout the text, and the English and Korean translators are likely to domesticate such oriental atmosphere in some parts and foreignize Japanese tradition in other parts.

In this paper, I explore how the English and Korean translators resist or comply with the original. I realize that the English translator attempts to tone down the author's criticism of the US afflicting Postwar Japan. I also find that the Korean translator deliberately revises the source text when it evokes memori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As America, Japan, and Korea have influenced each other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domesticated translation reflects the hegemonic struggle between these societies. Nonetheless, the English and Korean translators attempt to preserve the foreign identity of the source at the same time.

A translator compromises two strategies of translation based on his or her reading and understanding. When we look into how a translator coaxes the Japanese language into English and Korean, the cultural difference across the

Pacific and Korean Strait emerges self-evidently.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 and respecting diverse local color will be the first step to motivate transcultural and transnational exchange between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society.

▶ Key Words: domestication, foreignization, Lawrence Venuti, *The Old Capital*, Translation Studies

김한성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cladoni5@snu.ac.kr

관심분야: 세계문학, 번역이론

논문투고일: 2010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4일